

부역작가도, 종군작가도 아닌

- 1950년대 최정희의 문학 활동에 대한 재조명

나 보 령*

요약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 최정희의 문학 활동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첫째, 피난지 대구 시절이다. 종군작가단원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작가로서 이 시기 최정희가 전시 대구에 조성된 출판 환경 및 문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창작 활동을 해나간 과정을 '부역작가'의 낙인을 극복하고 전후 문단에서 재기하고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계기로서 재평가하였다. 둘째,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이다. 『장다리꽃 필 때』라는 새로운 자료를 해제하면서, 아동문학가로서 최정희가 쓴 전쟁 이야기가 기존에 논의된 작품들에서 전쟁을 서사화하는 방식과 구분되는 특징 및 전시에 발표되었던 정훈용 텍스트들이 아동문학이라는 이 책의 콘텍스트 가운데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굴절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문학을 통한 '갈라진 혀로 말하기'가 최정희 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최초의 여성 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다. 여성이 문단에서 재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된다는 일의 상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관련된 최정희의 활동이 1950년대 잠재적 여성작가층 및 여성독자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밝혔다.

주제어: 한국전쟁, 전후문학, 1950년대, 최정희, 피난, 피난지 대구, 아동문학, 여성문학, 여성작가, 장다리꽃 필 때, 학원, 학원사, 여원, 신춘문예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1. 서론
2. 또 하나의 피난지 대구 시절
3. 아동문학가로서 쓴 전쟁 이야기
4. 최초의 여성 심사위원
5. 결론

1. 서론

전쟁이 발발한 이래 6개월 만에 속간된 『문예』 전시판에는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는 제목 아래 전시 문인들의 근황이 정리된 명단이 게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문단의 변모”를 전하기 위함이라지만,¹⁾ 서울 수복 이후 전개된 부역자 처벌 국면에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으로 꾸려진 문총 내 ‘문단부역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의 자체 심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존재들이다. 명단 상에서 ‘부역 피의로 수감 중에 있는 자’와 ‘복행했다가 귀환한 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일찍이 A급 부역자로 판명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져 있던 경우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들은 특조위의 심사 결과 B급 부역자로 분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던 경우로, 『문예』 편집진은 명단에서 이들을 임의로 규정하는 대신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정희이다. 『문예』 창간호에 염상섭과 함께 문단의 원로 격으로 소설이 실리고, 같은 호에 유일하게 단독 작가론이 실리기도 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²⁾ 총 89명

1)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 『문예』, 1950.12.

의 문인들이 속한 명단은 물론, 『문예』 전시판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최정희는 남편 김동환의 도주에 따른 정치 보위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조선문학가동맹에 나갔고, 그곳에서 뼈라를 붙이고 가두행진 선전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로 인해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부역자로 낙인찍힌 그는 말 그대로 문단 내에서 이름이 지워진 존재가 된다. 최정희의 이름이 다시 공식석상에서 발견되는 것은 부역행위 자수자 명단에서인데,⁴⁾ 이번에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수사와 박해에 따른 결과일 터였다.⁵⁾

이처럼 연속되는 수난의 장 속에 처해있던 최정희는 피난지 대구에 이르러 비로소 공군중군문인단원이자, 전시 문인극의 히로인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어느새 문단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 가운데 한명이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선행연구에서 1950년대 최정희의 문학 활동은 주로 ‘부역작가’라는 낙인, 그리고 ‘종군작가’로 대변되는 인정투쟁의 서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세부적으로는 이 시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쟁동원의 양상과 국가주의 및 반공주의와 결탁함으로써 부역의 이력으로 박탈당한 공적 지위를 되찾고자 했던 양상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룬다면,⁶⁾ 일찍이 최경희(2006)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 2) 최정희, 「비탈길」, 『문예』, 1949.8, 24-36면; 곽종원, 「최정희론」, 『문예』, 1949.8, 163-167면.
- 3) 최정희, 「수난의 장」, 『현대문학』, 1955.1, 162면; 「속 수난의 장」, 『새벽』, 1955.1, 125, 134면.
- 4) 「부역행위 자수자 증가」, 『서울신문』, 1950.12.11.
- 5) 최정희, 「속 수난의 장」, 『새벽』, 1955.1, 133-134면.
- 6)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한국전쟁기 여성문학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9;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9-2, 한국근대문학회, 2008.10; 김복순, 「아프레 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3; 이병순,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5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10; 이병순, 「한국전쟁기 여성문인들의 반공서사 연구」

대표적인 전쟁동원 문학으로 말해져온 『野菊抄』(국민문학, 1942.11)를 대상으로 탁월하게 보여주었듯,⁷⁾ 텍스트 내에서 그와 같은 표면의 메시지에 균열을 가하거나, 그것을 배반하는 이질적인 목소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내려 시도한 연구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룬다.⁸⁾

어느 쪽이든 근 이십 년 가까이 제출된 논의들이 대개 ‘부역, 종군, 반공주의, 이등국민, 비국민, 젠더, 모성, 여류, 여성성’ 등의 엇비슷한 키워드들을 공유하고, 연구 대상으로 선택된 텍스트들도 몹시 한정적이라는 사실은 극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죽심(2010)이 지적하였듯, 1950년대 최정희는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는데, 이는 생계형 글쓰기라든지, 자기 치유적 글쓰기(기)를 넘어서는 문학적 전성기로서의 다채로움과 역동성을 지니는 까닭이다.

따라서 1950년대 최정희 문학을 부역작가도 종군작가도 아닌, 제3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새롭게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피난지 대구를 기반으로 한 전쟁기의 또 다른 활동상이다. 종군작가단원이 아닌, 한 명의 개별 작가로서 최정희가 전시 대구에 조성된 출판 환경 및 문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학적 활로를 모색해나간 과정을 전후 문단에서 그가

모윤숙과 최정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6; 허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진과 국민되기」, 『어문연구』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3; 허윤,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거듭나기」, 『근대서지』7, 근대서지학회, 2013.6;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46, 한국여성문학회, 2019.4.

7) 최정희, 「친일 문학의 또 다른 층위: 젠더와 『야국초』」,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2006, 387-433면.

8) 국가주의 및 반공주의 서사와 젠더의 성공적인 결합에 주목하는 방식이 초기의 연구 경향이 있다면, 최근에는 반대로 젠더에 대한 최정희 특유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국가주의, 반공주의 서사를 내파하는지를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이 주된 경향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허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6; 오태영,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2.

9)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0.2, 192면.

재기하고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계기로서 접근해보겠다.

둘째,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이다.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적 없는 『장다리꽃 필 때』(대양출판사, 1954.3)라는 새로운 자료를 해제하면서, 아동문학을 통해 최정희가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가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정훈용 텍스트들에서 전쟁을 서사화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그와 같은 종류의 기존 텍스트들조차 아동문학이라는 이 책의 콘텍스트 가운데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관해 논의해보겠다.

셋째, 최초의 여성 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다. 손유경(2017)이 식민지 시기를 대상으로 부각하였듯, 여성이 문단에서 문학 재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되는 일은 최정희 전에는 전무했다.¹⁰⁾ 그와 같은 최정희의 활동상은 전후에 훨씬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문단권력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1950년대 여성독자층 및 잠재적 여성작가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재접근해보겠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그동안 최정희 작가 연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미답 영토를 발굴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1950년대 최정희의 폭넓은 문학 활동을 국민국가의 틀로도, 국민국가 비판의 틀로도 한정시켜 논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또 하나의 피난지 대구 시절

問=여류소설가 최정희 여사의 복귀 여부는?
(그의 아드님 익조군의 동창 이명영 제5002부대에서)
답=대구에 체류하면서 계속 소설을 집필 중이며

10) 손유경, 「여류의 교류: 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2)」,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4, 393면.

대구역전 향수다방 주 전숙희 여사와 친밀히 왕래중이라고 하니 그곳으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겠지요.¹¹⁾

그동안 최정희의 피난지 대구 시절은 공군 중군문인단(창공구락부) 소속으로 수행한 각종 중군, 글쓰기, 연극, 강연 등의 정훈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주로 참조된 자료는 『국방』, 『코메트』, 『공군 순보』, 『훈장』 등 전시 군 발행 매체에 실린 글들과 「피난대구문단」(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2) 등을 비롯한 회고록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대개 정훈국이나, 한국문인협회 같은 특정 기관이 주도한 공식적인 글쓰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시에 정훈용 매체에 실린 텍스트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적인 회고록처럼 읽히는 「피난대구문단」조차 문단 내 통합 단체로 한국문인협회가 출범했던 1966년의 시점에서 해방 이후 문학사, 문단사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한 기획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잘 들여다보면 최정희가 쓴 글임에도 그 속에 ‘우리’가 아닌, 정작 최정희 개인의 피난 체험이 별반 드러나지 않은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글쓰기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 이 논문이 주목하는 자료는 최정희의 첫 번째 수필집 『사랑의 이력』(계몽사, 1952.2)이다. 대구에서 피난살이를 할 당시 출간된 것으로, 화가 김환기가 장정을 맡은, 290면 내외 분량의 책이다. 원고 말미마다 부기된 탈고일자를 확인해보면, 해방 이전 쓰인 글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시에 쓰인 글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전진(戰塵) 속에서」, 「최근 수첩에서」 장은 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로만 엮어져 있어 작가의 피난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나타난 피난지 대구 시절의 면면들은 최정희 문학에 대한 새

11) 「응접실」, 『조선일보』, 1952.6.9.

로운 논의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종군작가단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져 왔던 사실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피난지 대구 시절을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자전적 소설 『탄금의 서』 연작에 포함된 「피난행」 등을 통해 추정해왔을 따름인 최정희의 피난을 전후한 실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연말에 가까워져감에 따라 전세가 다시 위태로워지며 동료 문인들을 비롯한 대대수의 서울시민들이 피난을 떠났지만, 김동환이 실종된 데다 노모와 아이들하고만 떠나는 피난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최정희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시기 그는 동대문과 남대문의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다가,¹²⁾ 1950년 12월 22일 포병이 된 아들 김익조가 주선한 포병사령부 군인가족들의 트럭을 타고 피난하게 된다. 노모는 서울에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떠난 피난길에서 그는 가족이 뿔뿔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미군 트럭과의 충돌사고에서 체감하게 된 죽음의 공포, 악착스러운 피난민들 사이에서 환멸, 증오를 느끼는 가운데 나흘 만에 대구에 도착하였다.¹³⁾

둘째, 기존에는 피난 시절 종군작가단원으로서 공군 정훈감실 문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물질적, 상징적 특권을 누려왔던 것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당연하게도 그 역시 피난민으로서 불안정한 생활과 설움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증교착기」라는 글을 참고하면, 대구에 피난 온 몇 달 새에 방을 네 번이나 옮긴 것을 알 수 있으며, 피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오해를 받아 괴로웠던 심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¹⁴⁾ 이 점은 해군 장교 신분이었던 염상섭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

12) 최정희, 「나와 군인」, 『사랑의 이력』, 계몽사, 1952.2, 249면.

13) 최정희, 「피난민이 되어」, 위의 책, 223-230면. 피난살이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1년 반 만인 1952년 7월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최정희, 「서울에 돌아와서(7) 나는 '도로꼬'의 아이」, 『경향신문』, 1953.9.1), 1953년 7월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다(최정희, 「남으로 향하는 길: 탄금의 서」, 『희망』, 1955.5, 169면).

14) 최정희, 「애증교착기」, 『사랑의 이력』, 231-235면.

다.¹⁵⁾ 전시에 군 관계자가 된 것이 상대적인 특권임은 맞지만, 그 말아이들의 피난살이가 풍족했다거나 피난지에서 대단한 권위를 누렸다는 의미로 직결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피난대구문단」을 비롯한 회고록을 보면, 당시 최정희가 동료 문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문인극단에서도 인기의 히로인으로 활약하였던 것처럼 제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난 시절은 남성가장이 부재하는 이른바 ‘전쟁미망인’으로서 사생활에 관한 소문과 구설수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에서부터 들려오는 바람이 났다, 연애를 한다, 술을 마신다, 머리를 풀고 양장을 했다는 따위의 자신을 둘러싼 온갖 소문에 대해 최정희는 다음과 같이 직접 응수하기도 했다.

날더러 바람이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고 지켜주는 나의 벗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냥 있습니다. 바람도 아무 것도 안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言語로 말해 두는 것입니다.

(중략)

아무걸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풀어내린 것이나 洋裝(?)을 한 것이나 다 내 文學하는데는 何等의 支障이 없는 것이니까요.¹⁶⁾

눈여겨보면 다른 자료들에서도 피난 시절 최정희와 아이들만 있는 집에 남성문인들이 자주 드나들며 심하게 술주정을 하는 바람에 집주인 앞에서 몹시 곤혹스러웠던 일화라든지, 술자리에서 남성문인들의 음담패설

15) 전시 염상섭이 해군 장교로서 복무하는 가운데 겪었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피난살이에 대해서는 나보령,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2, 38-43면.

16) 최정희, 「추일사조(秋日詞藻)」, 『사랑의 이력』, 216, 219면.

로 인해 불쾌했던 일화 등이 나타나있다.¹⁷⁾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김채원의 자전적 소설에 등장하는 최정희의 형상인데, 여기에는 동료들과 어울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 어머니 최정희가 보이곤 했던 심한 감정기복과 히스테리, 알코올중독, 습관적인 자살 시도 등의 지극히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있다.¹⁸⁾

그동안 참조해온 공식적인 기록들 너머 개인 최정희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부상하는 또 하나의 피난 시절 앞에서 이 논문이 새롭게 던지려 하는 질문은 과연 종군작가단원이 아닌, 한 명의 개별 작가로서 최정희는 피난지 대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다. 이 때 새삼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앞서 인용한 문답에서 드러나듯, 그가 “대구에 체류하면서 계속 소설을 집필”했다는 사실, 전숙희가 경영하였던 대구 역전의 향수다방을 흡사 부산 피난문인들의 밀다원과 같은 집필실 내지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하며 창작 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전시 피난지 대구 지역의 특별한 출판 환경이다. 박용찬(2012), 이봉범(2013) 등의 연구에서 확인되듯, 전시 대구는 육군과 공군 본부가 주둔해있던 군사 공간이자, 정훈국과 종군작가단을 중심으로 각종 군 관련 문학매체가 생산되며 전시 출판문화가 성황을 이루던 공간이기도 했다.¹⁹⁾ 이는 비단 정훈 출판물에만 한정되지 않았는데, 예컨대 1.4후퇴 직후 부산과 대구에 흩어져 있던 30여명의 피난 문인들을 규합해 김송이 펴낸 전시 최초의 문학독본인 『전시문학독본』(계몽사, 1951.3)이 출간되었던 곳이 대구였으며, 『신태양』

17) 최정희, 「남자친구들」, 『젊은날의 증인』, 육민사, 1962, 92-94면.

18) 최정희가 전시의 고독한 일상에 관해 쓴 「얼음 위에 지은 집」(『젊은날의 증인』, 52-53면)을 다시 쓴 것으로 읽히는 김채원, 「얼음집」, 김지원·김채원, 『먼 집 먼 바다』, 지식산업사, 1977 참조.

19)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51, 국어교육학회, 2012.8;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10.

(1952.8), 『학원』(1952.11) 등의 대중적인 인기를 끈 잡지들이 새로 창간된 곳이 대구이기도 했던 것이다.

피난 시절 최정희는 전쟁을 계기로 대구로 옮겨오거나, 전시 대구에서 새로 설립된 출판사 또는 대구 지역의 유서 깊은 출판사 등에서 책을 발간하고, 이곳에서 발행된 잡지에 글을 실으며, 대구로 피난한 문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해나갔다. 당장 앞서 살핀 수필집 『사랑의 이력』부터가 5년 전부터 출간을 준비하였으나, 두세 번 계약이 무산된 끝에²⁰⁾ 피난지 대구의 신생 출판사인 계몽사를 통해서 비로소 출판될 수 있었다.²¹⁾

또한 최정희의 대표작인 이른바 ‘삼백 시리즈’를 엮어 해방 이후 출판한 단편집 『천막』(수선사, 1948) 역시 대구 지역의 오래된 출판사인 광문사에서 1952년 10월 재출판 되었다. 대구에 피난 왔을 때 “『인맥』을 쓴 최정희를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은 난리 德이라면서 참 반가워”²²⁾했던 사람을 만났다는 일화를 미루어 대중적인 인기를 고려한 재출판이었으리라 보인다.

대구로 피난 온 대양출판사(전후 학원사의 전신)와의 인연 또한 중요하게 지적될 필요가 있다. 대양출판사 사장 김익달이 피난지 대구에서 창간하고, 장만영이 주간을 맡았던 학생잡지 『학원』에 최정희는 피난 시절 자주 글을 실었고, 이 인연을 매개로 대양출판사가 서울로 옮겨온 뒤, 전후 첫 번째 단편집 『장다리꽃 필 때』를 출간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1954년 3월 발행된 이 책은 1953년 7월 정부가 환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이른 시기의 문예출판물에 해당하는데, 이는 최정희가 남들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난 시

20) 김동리, 「세월을 쓰는 원자탄: 최정희 수필집 『사랑의 이력』에 대하여」, 『경향신문』, 1952.4.3.

21) 최정희, 「덧말 두어마디」, 『사랑의 이력』, 292면.

22) 최정희, 「애증교착기」, 『사랑의 이력』, 232면.

절 대구에서 계속 창작을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외에도 전후 최정희의 광범위한 활동상의 밑바탕에는 대구 피난 시절 대양출판사 및 김익달과의 인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²³⁾ 예컨대, 첫 번째 장편 『녹색의 문』(서울신문, 1953.2.26-7.8)이 돌연 연재가 중단된 이후²⁴⁾ 최정희는 후속편에 해당하는 『흑의 여인』(여원, 1955.10-1956.10)을 학원사에서 창간된 『여원』을 통해 연재할 수 있었다. 또한 창간호부터 여원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훗날 장편 『인간사』로 『여원』 창간100호 기념 제1회 한국여류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원사에서 창간한 또 다른 여성잡지 『주부생활』의 편집주간 활동도 있다.²⁵⁾ 주부잡지에 대한 최정희의 관심은 전쟁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인데,²⁶⁾ 이것이 전후 『주부생활』에서의 편집주간 활동을 통해 현실화되었다고 보인다.

이상의 활동상들은 전후 최정희가 작가로서 재기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종군작가단원으로서의 이력 못지않게 피난지 대구에 조성된 출판매체와 문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창작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속해 나간 사실이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 논문은 이를 전후 최정희가 ‘부역작가’의 낙인을 딛고 문학적 전성기를 맞이할

23) 타계 직전 최정희는 와병 중이었음에도 학원사 사장 김익달에 관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회고록에 글을 실었다. 최정희, 「아이 같이 천진한 마음 속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학원 김익달 전기 간행위원회 편, 『학원세대와 김익달』, 학원사, 1990, 274-275면.

24) 당시 『서울신문』에서는 작가와 상의 없이 신문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56년 작가들이 서울신문에 집필을 중지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문학가권익옹호위원회」를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는데, 당시 최정희는 관련 협의회에서 임시 의장단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서울신문에 작가 61명 도전 일체 집필을 거부」, 『경향신문』, 1956.9.21; 「작가의 권익옹호 위하여 14일 협의회를 결성」, 『경향신문』, 1956.11.17.

25) 『주부생활』 편집주간 활동과 관련해서는 허윤, 위의 글, 2013.6; 이병순, 「1950년대 여성담론의 소설적 구현: 최정희의 「너와 나의 청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59-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4.

26) 최정희, 「천진하는 시대와 함께」, 『조선일보』, 1950.1.1.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아동문학가로서 쓴 전쟁 이야기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최정희는 『장다리꽃 필 때』(대양출판사, 1954.3)²⁷⁾라는 아동문학 작품집을 출간하였다. 『바람 속에서』(인간사, 1955.12)보다 일 년 앞서 출간된 전후 첫 번째 작품집이지만, 선행연구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총 19편의 글들이 실린 150면 분량의 책으로, 표지 장정과 삽화는 각각 화가 백영수, 김훈이 맡았다.

전쟁 이전까지 최정희는 아동문학은 창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가가 되기 전 그가 중앙보육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졸업 이후에도 경남의 함안유치원과 도쿄의 미키와(三河) 유치원에서 보모로 근무하는 등 아이들과 밀접한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²⁸⁾ 아동문학 창작은 그리 뜻밖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그 직접적인 계기는 전쟁이었다. 『장다리꽃 필 때』의 말미에 수록된 작가 부기에서 그는 대구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딸들이 읽을거리가 부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써보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²⁹⁾ 앞 장에서 살핀 『사랑의 이력』에서도 「아기네를 위하여」라는 장을 따로 마련하는 등 최정희는 전시 아동들의 현실에 부쩍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휴전 직후 아동문학이 급격히 부상하며 독서 시장에서 우위³⁰⁾를 점했던 사정과는 무관하지 않다. 피난지 대구에서 학생잡지 『소년세계』

27) 귀중한 수택본 자료를 제공해주신 아단문고에 감사드린다.

28) 최정희, 「중앙보육시절」, 『젊은날의 증언』, 23면; 최정희, 「나의 문학소녀시절」, 『동아일보』, 1958.7.2.

29) 최정희, 「뒤편 몇 마디」, 『장다리꽃 필 때』, 대양출판사, 1954.3, 150면.

30) 이봉범, 위의 글, 379면.

(1952.7), 『학원』(1952.11) 등이 창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전시부터 아동물은 출판 시장에서 큰 수요가 있었다. 언급했듯, 당시 최정희는 이 매체들을 통해 꾸준히 글을 발표하였고, 그 덕에 전후 서울에서 다른 어떤 작가보다 이르게 단독으로 아동문학 작품집을 출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그는 학원문학상을 비롯해 각종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전국동요동화대회, 전국아동예술대회, 어린이 백일장 등 아동문학 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1950년대 내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³¹⁾ 그동안 최정희 문학 연구에서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이 전혀 주목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다리꽃 필 때』에는 전시에 쓰인 글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책 전반에 전쟁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그렇다면 최정희가 아동문학가로서 쓴 전쟁 이야기는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는 기존에 잘 알려진 그의 여느 전쟁 서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어린 아이의 시점에서 체험한 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나 가족구성원의 상실 등을 겪은 아이들의 슬픔, 그리움, 상실감, 우울의 정서를 전면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정희의 전쟁 이야기가 대개 어머니의 시점에서 모성이라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논의되어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점은 새롭다.

대표적으로 「낙엽」³²⁾을 살펴보자. 어젯밤 피난지 대구에서 서울로 돌

3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최정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검색되는 1950년대 아동문학 관련 행사 기사로는 「어린이와 글짓기」, 『조선일보』, 1954.12.6; 「전국어린이 글짓기 대회」, 『조선일보』, 1955.9.25; 「덕수교 우승 전국 동요동화 대회」, 『조선일보』, 1956.10.14; 「전국동요동화대회」, 『조선일보』, 1957.7.15;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 『조선일보』, 1957.8.20; 「전국아동예술대회개최」, 『조선일보』, 1958.7.16; 「어린이 백일장」, 『조선일보』, 1959.10.7.

32) 「낙엽지는 날」(학원, 1953.1)로 처음 발표된 뒤, 『장다리꽃 필 때』에 재수록 될 때 「낙엽」으로 개제되었다.

아온 금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견한 아버지의 모자 앞에서 깊은 그리움을 느낀다. 아버지가 전쟁 통해 실종된 뒤로 금아를 비롯한 가족들은 한시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다. 피난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건만, 여전히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전쟁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저 낙엽이 지고 새 움이 돋아나기까지 아버지가 부재하는 시간을 홀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금아로 하여금 영원히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사랑하는 나의 아빠
꽃 피었는데도 안 오시네.³³⁾

“낙엽아 어서 져라, 새움이 돌기 위해서 어서 져라.”³⁴⁾

기실 이 모자 모티프는 최정희의 시점에서 쓰인 수필이나 소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왔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모티프가 애상과 비애의 정조를 동반하면서, 부역의 낙인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던 최정희 자신을 민족수난사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친일의 이력이 있는 김동환 역시 ‘잃어버린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공적 서사 만들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³⁵⁾

그러나 동일한 모티프일지라도 어린 딸의 시점에서 다시 쓴 「낙엽」에서 그와 같은 효과는 반감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에 표현된 금아의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는 자신들을 일방적인 민족수난의 피

33) 최정희, 「낙엽」, 『장다리꽃 필 때』, 58면.

34) 최정희, 위의 글, 65면.

35) 안서현, 「작가들의 전쟁 체험 수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14-2, 한국근대문학회, 2013.10, 79면.

해자로 재현한다거나, 그럼으로써 국민국가의 성원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는 잘 수렴되지 않는다. 최정희의 딸인 ‘아란’을 직접 화자를 내세우며, 납북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아이의 시점에서 포착된 다채롭고 친진한 일상의 일화들로 구성된 「언니의 일기」 연작³⁶⁾이 그러한 목적의 글쓰기로서만 읽히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어린 아이를 초점 화자로 채택함으로써 국가주의적 관점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점이야말로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최정희가 전시에 발표한 정훈용 텍스트들에서 전쟁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빈번하게 등장시키곤 했던 ‘국군의 어머니’나 ‘국가모성’³⁷⁾의 형상은 이 책에 실린 어떤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후방에서 깨끗하고 강인하게 생활하는 어머니의 모습 대신, 아이의 눈을 통해 제시되는 것은 남겨진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된 생존의 과제이자(때로 그 짐은 아이 자신에게조차 지워져있다), 어디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전쟁 유가족들의 삶의 취약성이며, 통틀어 국가의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가족 공동체의 상흔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메아리」³⁸⁾를 살펴보자.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직이의 시점에서 쓰인 이 소설은 전시 동대문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며 오남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고된 일상을 담아낸다. 어머니가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육체노동,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푸대접과 멸시의 한편에서, 어머니와 비슷하게 전쟁으로 남성 가족을 잃고 생존전쟁의 현장으로 내

36) 『장다리꽃 필 때』에는 「언니의 일기」라는 제목의 글도 있고, 동일한 부제가 달린 「두 개의 나무: 언니의 일기」, 「어느 새가 먼저: 언니의 일기」도 있다. 모두 아란의 시점에서 쓰인 일기 형식의 글이다. 이외에도 아단문고에서 제공한 수택본에는 「인형」, 「학교가는 길」, 「원하고 바라는 것」에도 작가의 친필로 ‘언니의 일기’라는 부제가 삽입되어 있다. 추정컨대, 최정희는 자전적 소설인 『탄금의 서』 연작처럼 딸의 시점에서 쓰인 자전적 소설로 『언니의 일기』 연작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7) 공임순, 위의 글, 27, 30면.

38) 「산울림」(소년세계, 1952.9)으로 처음 발표되었다가 『장다리꽃 필 때』에 재수록 될 때 「메아리」로 개제되었다.

몰린 안채 할머니 등과 같은 여성들의 모습이 직이의 시선을 통해 포착된다.

이들은 전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지만, 어서 어른이 되어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라는 직이의 소원에서 드러나듯, 어디에서도 필요한 구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국가가 이들의 삶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 부통령 선거이다. 선거를 치르는 날 시장은 일제히 문을 닫는데, 그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직이 가족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연이틀을 굶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당장의 배고픔에 앞서, 선거에 간절한 희망과 기대를 지니고 있다. 더 이상 밥을 굶지 않게 해줄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달라는 소망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그와 같은 소망은 결코 가닿을 수 없는, 흡사 산 속의 메아리와도 같이 “저 혼자만이 치는 소리”³⁹⁾로 제시될 뿐이다.

이 소설이 발표되었던 1952년은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이 벌어졌던 시기였다. 국회와 대통령이 앞 다투어 국민의 뜻을 표방하며 권력 싸움을 벌일 때 전쟁의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국민들의 현실을 「메아리」는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이 소설은 전시에 최정희가 발표한 다른 정훈용 텍스트들과 겹쳐 읽을 때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화하기도 해 주목된다. 최정희는 「사고뭉치 서역만」(국방, 1951.6)에서 군인의 영웅적인 죽음을 서사화했고, 「임하사와 어머니」(협동, 1952.12), 「출동전야」(『전시한국문학선1(소설편)』, 국방부정훈부, 1954) 등에서는 자식을 기꺼이 전장으로 내보내는 명예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서사화한 바 있다. 흡사 그 소설들의 후일담처럼 읽히는 「메아리」는 정반대로 국군의 어머니 또는 아내가 되어 가족을 전장에 보낸 뒤 이어지는 이들의 실제 삶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 서늘하게

39) 최정희, 「메아리」, 『장다리꽃 필 때』, 26면.

되묻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전쟁 상황과 무관해 보이는 소설에서조차 개인적인 상실감, 불가능한 애도, 그로부터 기인하는 슬픔, 절대적인 무력감 등의 정서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표제작인 「장다리꽃 필 때」부터가 그러한데, 이 작품은 아랫마을 복실이를 그리워하다 열병에 걸려 죽음에 이른 옷마을 장쇠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비슷하게 「반딧불」은 어느 황혼녘에 마주친 총각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으나,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은 뒤 그를 찾아 나서기 위해 반딧불로 태어난 처녀의 슬픈 전설을 들려준다. 「베갯모」에는 항상 투덕거렸던 옆집 동무 송남이 멀리 떠나고 정아가 느끼는 외로움과 오래 전에 새 살림을 차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있다. 또한 해방기가 배경인 「아기별」에서는 집을 나간 어머니를 향해 운수, 운배 형제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씹곤 하는 껌의 미각을 통해 재현된다.

책의 주조를 이루는 이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콘텍스트 속에서 전시에 정훈용으로 창작된 뒤 이 책에 재수록된 텍스트들의 메시지가 미묘하게 굴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예컨대, 전시에 철도경찰본원에서 창간한 정훈잡지 『철경』에 실렸던 「자장가」(1952.4)는 최초 게재 당시에는 작품 말미에 덧붙여진 멸공의 메시지가 중요했을 테지만, 아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 책의 맥락 안에서는, 앞서 「낙엽」에 재현된 금아의 눈물과 같이, 부재하는 어머니로 인한 순구의 슬픔이 좀 더 강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순구는 어머니의 온갖 추억이 물 밑 듯 밀려서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다. 자칫하면 순구 저도 순미나 외할머니처럼 울음이 터질 것 같다. 눈을 한 번 깜빡 하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몸을 한 번 움직이기만 하면 통곡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순구는 눈을 똑 바로, 몸을 뺏뺏이 하고 앉아 있다. 울기보다 울지 않는 일이 지금의 순구에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⁴⁰⁾

피난 내려 갈 때만이 아니라 피난 내려 가셔도 금아들은 울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눈물을 철철 흘리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속으로 어느 날이나 울고 있었습니다.⁴¹⁾

「낙화」(문예, 1953.1)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인이 되어 일선에 나간 재민이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선주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 소설이 김양선(2008)의 지적처럼 후방의 여성상을 통해 “이기고 돌아오라”는 승공의 공적 메시지⁴²⁾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다리꽃 필 때」나 「반딧불」에서 전면화 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에 비추어 읽는다면, 재민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극과, 앞으로 선주가 견뎌야 하는 그리움의 시간이 낙화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훨씬 강조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중군문학으로는 말하지 않았던 혹은 말할 수 없었던 목소리가 아동문학을 통해 발화되고 있으며, 그 점에서 식민지 시기에도 그러하였듯, 여전히 ‘갈라진 혀로 말하기’에 주목하는 작업이 최정희 문학 연구에서 긴요해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젠더를 중심으로 최정희 문학을 다시 읽는 작업이 활발히 시도되어왔는데, 비단 여성의 글쓰기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가로서의 글쓰기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1950년대 최정희 문학에 대한 접근법이 훨씬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을 『장다리꽃 필 때』에 실린 작품들은 확인시켜 준다.

40) 최정희, 「자장가」, 『장다리꽃 필 때』, 75면.

41) 최정희, 「낙엽」, 『장다리꽃 필 때』, 57면.

42) 김양선, 위의 글, 165면.

4. 최초의 여성 심사위원

1950년대 최정희와 관련해 이 논문이 마지막으로 주목하려는 것은 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다. 김복순(2012), 이병순(2020)이 지적하였듯, 최정희는 1950년대 내내 『학원』, 『학생계』, 『야담』, 『여원』, 『여상』, 『주부생활』, 『사상계』, 『문학예술』, 『현대문학』 등 각종 매체에서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의 자격으로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당시 20여년에 달했던 문학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최정희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 의미가 새삼스러워진다.



〈그림〉1. 1954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심사 광경 (가운데 최정희)

1954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신춘문에 심사 광경 사진에서 드러나듯, 당시 최정희는 심사위원에 포함된 유일한 여성작가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정희 이전에 여성이 문단에서 심사위원이 되었던 일 자체가 전무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두고 최정희가 이 시기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가히 문단권력의 한 봉우리”⁴³⁾로 군림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대목은 좀 더 복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부터 신문잡지에 투고를 만히 했는데 도모지 내주지를 아녀요(笑聲)
그래서 그분푸리로 잡지 기자가 되어서요.⁴⁴⁾

43) 김복순, 『나는 여자다: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4, 55-58면.

44) 최정희, 「여기자좌담회」, 『신동아』, 1932.5, 88면.

그러나 우리와같이 나아갈 송계월의 죽엄이라든지 김명순의 행방불명, 불문입(佛門入)으로 붓을 꼭 멈춘 김일엽 또는 가정에 들어간 김원주 제씨를 잃어버린것은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수없다.⁴⁵⁾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1930년대에 처음 기자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정희는 여성들에게 좀처럼 지면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 및 여성들의 글쓰기가 지속되기가 몹시 어려운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두 문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었는데, 애초에 지면이 주어지지 않으니 여성들이 문단의 진입장벽을 넘기도, 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그 결과 문단 내에서 지분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니 다시 동료나 후속세대 여성 작가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지면을 주지도, 이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최정희는 일찍부터 이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적극 타개해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유경(2017)이 지적하였듯, 그는 해방 이전 조선일보, 삼천리 기자라는 직업을 십분 활용하여 나혜석, 이선희, 지하련, 임옥인 등 선후배 여성 작가들이 지면을 할애 받고, 문단 활동 시작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손유경은 이를 단순히 여성들의 문단 진출 및 지면을 양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 문단의 물적 기반인 매체를 전유하고 탈구축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질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흥미롭게 논의한 바 있다.⁴⁶⁾

그와 같은 시도는 1950년대에 이르러 훨씬 본격화된다. 당시 최정희는 문단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원로의 반열에 오른 작가였으며, 해방 전후를 잇는 유일한 현역 여성작가로 호명되고 있었다. 당연히 최정희 외에도 해방 이전부터 활동해온 여성작가로, 소설 부문만 놓고 보더라도 김말봉, 박화성, 장덕조 등이 있었지만, 최정희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던 경우는 드

45) 최정희, 「1933년도여류문단총평」, 『신가정』, 1933.12, 45면.

46) 손유경, 위의 글, 387-389면.

물었던 것이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195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는 1941년 폐간과 함께 중단된 이래 십여 년 만에 야심차게 부활한 제도였는데,⁴⁷⁾ 조선일보는 여기서 염상섭, 유치진, 손우성과 함께 “여류작가로 원숙한 경치를 개척한 최정희 여사 등 사 씨를 고선자로 위촉”⁴⁸⁾하였다고 밝혔다. 과거 지면을 받을 수조차 없어 ‘분필이’로 기자가 되었던 그가 조선일보에서 여성 최초로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통쾌하다.

「그러나 쓰세요, 어쨌든 쓰세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자나깨나 글쓰는 데에만 생각 두세요……」

글쓰는 후배를 대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되푸리 하는 고마운 말이다.⁴⁹⁾

실제 1950년대 최정희의 존재는 작가를 지망하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자 멘토 역할을 하였다. 인용한 김일순의 글에서 드러나듯, 최정희는 후배 여성작가들에게 틈나는 대로 계속 글을 쓸 것을 강조하였다. 사석에서뿐만 아니라 『여원』 등과 같은 공적 지면을 통해서도 그는 후속 세대 여성들에게 작가로서의 경험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고,⁵⁰⁾ 서평 등의 형식으로 여성들의 문학적 성과를 앞장서 홍보하곤 했다.

여성이 쓴 평론집으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더욱 귀중한 생각이 든다. 처음에 정 여사는 이 책의 표제를 『마음의 꽃밭』으로만 할

47) 1950년대의 신문사 신춘문예 제도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신춘문예와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6, 377-378면.

48) 「신춘현상 단편소설선자」, 『조선일보』, 1953.12.15.

49) 김일순, 「문단의 여성군: 최정희 씨」, 『협동』, 1952.9, 99면.

50) 최정희, 「여류작가가 되려는 분에게」, 『여원』, 1956.1, 190-191면; 최정희, 「나는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었다」, 『여원』, 1956.7, 92, 208면.

생각이었다. 또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의 표제를 『정충량평론집』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내 것도 아닌 남의 책의 이름에 이와 같이 내 고집을 세운 것은 **이때까지 없었던 여성의 평론집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중략)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실로 많은 여성들이 이 책을 읽어서 지식과 교양을 쌓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줄곧 가지고 있었다.⁵¹⁾ (강조 인용자)

무엇보다 그는 여성작가를 배출하고, 여성들이 활동할 지면을 확보하는 문단 내 재생산과 유통 현장의 전위로서 활동하였다. 김양선(2012)이 지적하였듯, 1950년대 중반 이후 『여원』, 『여성계』, 『여성』 등의 여성지를 통해 여성작가들의 등단 경로가 다양해지고 유행량이 증대되었는데,⁵²⁾ 바로 여기서 최정희는 소설부문 심사위원으로 누구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며 흡사 산파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여류들이 왜 안 나오느냐”고 답답해들 하는 말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 해도 장한테 또 그우에 소설가까지 될 수야 있느냐”고 이렇게 대답해 왔는데 인젠 이런 답답해하는 질문이 있을 리 없고 궁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⁵³⁾

비단 여성지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학원』 같은 학생잡지에서도 그는 안수길, 최인욱 등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작품에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⁵⁴⁾ 예컨대, 1957년 학원문학상 선후기에서 그는 “「선물」은 솔직히 말해서 뽑지 않아도 좋을 글이었으나 여자의 것이 한 편도 없기 때문에 뽑았다. 안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이었으면 안 뽑았

51) 최정희, 「정충량 평론집」(서평), 『조선일보』, 1959.4.10.

52) 김양선, 『한국 근, 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183면.

53) 최정희, 「소설 선후감」, 『여원』, 1956.1, 245면.

54) 학원 김익달 전기 간행위원회 편, 위의 책, 135면.

을지 모른다. 분투하기 바란다”⁵⁵⁾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당대 심사평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된다. 1950년대 신춘문에 심사평은 오늘날에 비해 훨씬 노골적이라 할 만큼 심사위원들 간의 의견 불합치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의 양상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묵살되는 데서 오는 최정희의 불만은 유독 빈번하게 들린다.

일례로, 1959년 소설 부문 선후평을 살펴보면, 당시 최정희가 박순녀의 「부부유연」을 두고 박력은 부족하지만 빈틈도 없는 작품이라고 호평하면서, 가작에 올리고 싶어 했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또 다른 심사위원 박영준이 황폐강의 「청계천」을 우수작으로 밀면서 둘 사이에 끝내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해 소설 부문에서는 당선작은 물론 가작조차 나오지 않았다.⁵⁶⁾ 여성들의 작품에 기회를 주려는 최정희의 의지 대 투고 작품 전반의 수준 저하와 ‘문학정신’의 결여를 지적하는 박종화, 박영준의 대립 구도는 1950년대 심사평에서 자주 반복된다.⁵⁷⁾

작년도에 소설심사를 맡아보신 박종화 선생님과 박영준 씨 두 분이 작년도에 비하면 수준이 저하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당선작을 낼 수가 없었다. 결코 작년 수준에서 떨어 안 진다고 오히려 나은 편이라고 하는 내 말을 막무가내로 들어 안 주시니 혼자서 하는 수가 없었다.⁵⁸⁾

55) 최정희, 「선후가: 표현 기법이 더욱 요망된다」, 『학원』, 1957.2, 239면.

56) 최정희, 「유감스런 소감」, 『조선일보』, 1959.1.2.

57) 참고로 1959년 고배를 마셨던 박순녀는 1960년 신춘문예에서 「케이스 위카」로 가작 일석을 차지하였다(「신춘문예 심사결과발표」, 『조선일보』, 1960.1.1). 이 해에도 소설 부문의 당선작은 없었으며, 특히하게도 이때는 소설 부문의 선후평도 실리지 않았는데, 시일이 조금 지난 뒤 박영준이 선후평을 대신해 응모작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학정신의 결여와 소설의 질적 저하를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것이 눈길을 끈다. 박영준, 「문학정신의 결여」, 『조선일보』, 1960.1.18.

58) 최정희, 「좀 더 노력을」, 『조선일보』, 1956.1.3.

가작이라도 내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으나 그것조차도 꺾이고 말았다 유감스럽게 여긴다.⁵⁹⁾

그러한 까닭에 최정희가 여성 심사위원으로서 1950년대에 여성작가를 배출하는 데 끼친 실질적인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 등의 형태로 논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1950년대까지 그는 선자가 지정된 추천제에는 회의를 표하며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⁶⁰⁾ 복수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신춘문에 방식의 심사에 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작가가 당선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최정희의 직접적인 기여인지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조선일보 심사평에서 드러나듯, 여성작가를 뽑으려 했던 의지는 확인되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던 경우 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정희라는 존재가 동시대 여성들에게 끼쳤던 광범위한 상징적 효과이다. 이채를 발하는 문단의 화초분 정도로 여겨져 왔던 ‘여류’가 남성작가들과 나란히 활동을 하고, 상을 받고,⁶¹⁾ 나아가 문학상을 심사하는 지위에 오른다는 것, 같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글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언급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잠재적 여성작가층 및 여성독자층의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최정희가 관여했던 조선일보는 아니지만,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서는 22세의 대학생 정연희가 당선되는 유례없는 ‘쾌사’가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여성이 메이저 신문의 신춘문에

59) 최정희, 「유감스런 소감」, 『조선일보』, 1959.1.2.

60) 최정희, 「신인들의 역량이 문제: 소설가 최정희 씨 답」, 『조선일보』, 1960.1.25.

당시 문단은 예술원 사태로 양분되어 『현대문학』과 『자유문학』 두 잡지를 중심으로 신인 추천이 이루어지고, 서로 파벌을 짓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정희의 경우 무소속을 자처하며 양쪽 모두와 거리를 두었다(「단체생활에 염증? 한국문협 7씨 탈퇴」, 『경향신문』, 1956.3.12). 이는 1950년대 추천제를 통한 신인 배출에 최정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정과도 연결된다고 보인다.

61) 「서울시문화상에 빛나는 사람: 문학상 최정희 씨」, 『조선일보』, 1959.5.20.

를 통해 당선된 이 사건의 의미를 대서특필하였다.⁶²⁾ 1960년대에 이르면 “문단의 재녀(才女) 시대”, “여류작가의 봄”⁶³⁾, “문단 여인천하시대”, “남성들의 활약이 ‘산수급수적’이라면 여성들의 활약은 ‘기하급수적’”⁶⁴⁾ 등과 같은 표현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 만큼 여성작가들은 말 그대로 대활약을 한다. 메이저 신문 연재소설의 3분의 2가량을 여성작가들이 장악하게 되고, 출판 시장에서도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였다. 박경리, 강신재, 전혜린 등 당대 베스트셀러 여성작가들이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여성작가층과 독자층의 저변 자체가 두터워지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1950년대 여성문학은 이른바 ‘규수작가’로 말해지는 부르주아 여성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전쟁과 국가 재건, 개발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던 양상 및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보수적인 전후 여성 엘리트 교양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던 측면 등과 관련지어 주로 연구되어왔다. 중요한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최정희나 박경리와 같은 작가들이 규수와는 거리가 먼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1950년대 여성문학을 구성하는 훨씬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 그리고 역동적인 가능성이 소용돌이 치고 있던 두터운 심층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 여성으로서 요절하지도, 절필하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던 최정희의 존재는 중요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십년 후에 펼쳐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이십년 후에 펼쳐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다. 금년에도 이 생각을 그

62) 「심사평과 입선소감: 본보신춘문예」, 『동아일보』, 1957.1.10.

63) 김이석, 「문단의 ‘재녀’ 시대: 두 여류작가의 탄생을 반기면서」, 『동아일보』, 1963.8.24.

64) 김양수, 「문단 여인천하시대」, 『현대문학』, 1966.8, 275면.

대로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일은 노력하면 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소설 쓰는 일만은 노력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구랍(舊臘)에 창작집 한 권을 내놓고 나서 이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다. 어느 한 편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책을 만드는 도중에 중지해버리고 싶기까지 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왜 꾸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나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 세상엔 수두룩할 텐데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이 일 이상으로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⁶⁵⁾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 최정희의 문학 활동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첫째, 전시 피난지 대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다. 종군작가단원이 아닌, 한 명의 개별 작가로서 이 시기 최정희가 전쟁을 계기로 대구로 옮겨오거나, 전시 대구에서 새로 설립된 출판사 등에서 책을 발간하고, 이곳에서 발행된 잡지들에 글을 실으며 대구로 피난한 문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럼으로써 전시 대구에 조성된 출판 환경 및 문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학적 활로를 모색해나간 과정을 전후 문단에서 재기하고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계기로서 재평가하였다.

둘째,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이다. 『장다리꽃 필 때』라는 새로운 자료를 해체하면서, 아동문학가로서 최정희가 쓴 전쟁 이야기가 기존의 작품들에서 전쟁을 서사화하는 방식과 구분되는 특징을 조명하였다. 그동안 최정희의 전쟁 서사가 어머니의 시점에서 모성 표상을 전략적으로 활용

65) 최정희, 「이해에 하고픈 것」, 『동아일보』, 1956.1.8.

하였다고 논의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의 경우 전쟁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가족구성원의 상실을 겪은 아이들의 슬픔, 그리움, 상실감, 우울의 정서를 전면화한다는 데 주목하였고, 그것이 전자의 국가주의적 관점과 충돌하는 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전시에 창작된 정훈용 텍스트들조차 개인적인 상실감, 불가능한 애도, 슬픔, 절대적인 무력감 등을 주된 정서로 삼는 이 책의 콘텍스트 가운데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정훈적 성격이 축소되고 후경화 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종군문학으로는 말하지 않았던 혹은 말할 수 없었던 목소리가 아동문학 장르를 통해 발화된다고 보았고, 아동문학을 통한 ‘갈라진 혀로 말하기’에 주목하는 작업이 1950년대 최정희 문학을 다시 읽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최초의 여성 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다. 이를 문단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논하는 대신, 여성이 문단에서 재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된다는 데서 오는 상징적 효과와 결부지어 조명하였다. 즉, 이 시기 최정희가 작가를 지망하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자 멘토 역할을 하고, 각종 여성지와 종합잡지, 신춘문예 등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여성작가를 선출하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50년대 잠재적 여성작가층 및 여성 독자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부역작가 그리고 종군작가로 호명되어온 1950년대 최정희의 정치적 행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 최정희의 종군작가 활동은 한국전쟁기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 기간의 파월 종군작가 활동으로도 이어지고,⁶⁶⁾ 직접적인 종군을 넘어 전쟁동원 및 위문의 광의로 해석해본다면 아시아·태평양전쟁기로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역 행위 역시 한국전쟁기의 좌익 활동뿐만 아니라, 일

66) 최정희가 1967년 파월 종군작가단장으로 몇몇 여성작가들과 함께 사이공, 퀴논 등지에서 벌인 장병 위문 활동에 대해서는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11, 80면.

제 말기의 친일 협력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그 점에서 봤을 때 허운(2015)의 지적처럼 “최정희만큼 치열하게 ‘정치적’ 행보를 계속한 작가도 없다”⁶⁷⁾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면모가 50년에 달하는 최정희의 문학 활동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며,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도 또한 아니다. 이 논문은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수 없으며, 작가론의 측면에서 전자 이외의 영역들이 오랫동안 도외시 되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까닭에 역으로 이 논문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 피난지 대구에서 최정희가 작가 개인으로서 벌인 문학 활동이라든지, 아동문학가, 여성 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 등을 조명하는 작업이 그의 정치적, 공적 행보를 은폐하거나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결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

최정희의 부역 이력이나, 중군을 위시한 정치적 글쓰기에 관해서라면,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 중에는 십여 년 전의 관점이 되풀이 되는 것처럼 읽히는 연구들마저 있다. 이 영역에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해 지려면, 관련 자료를 새로 발굴하거나 연구방법론이 갱신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그와 달리 기존 작가론의 미답 영토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한편, 제3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그 점에서 최정희 문학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67) 허운, 위의 글, 2015.6, 133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신동아』, 『신가정』, 『문예』, 『협동』, 『현대문학』, 『새벽』, 『여원』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최정희, 『사랑의 이력』, 계몽사, 1952.

최정희, 『장다리꽃 필 때』, 대양출판사, 1954.

최정희, 『젊은날의 증언』, 육민사, 1962.

김지원·김채원, 『먼 집 먼 바다』, 지식산업사, 1977.

학원 김익달 전기 간행위원회 편, 『학원세대와 김익달』, 학원사, 1990.

2. 단행본

김양선, 『한국 근, 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김복순, 『나는 여자다: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4.

3. 논문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46, 한국여성문학회, 2019.4, 7-37면.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한국전쟁기 여성문학장을 중심으로」, 『어문학』101, 한국어문학회, 2008.9, 333-357면.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9-2, 한국근대문학회, 2008.10, 203-234면.

김복순, 「아프레 결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3, 285-308면.

나보령,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2.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51, 국어교육학회, 2012.8, 329-358면.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11, 69-87면.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0.2.

손유경, 「'여류'의 교류: 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2)」,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4, 385-419면.

- 안서현, 「작가들의 전쟁 체험 수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14-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3.10, 59-97면.
- 오태영,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2, 327-360면.
- 이병순,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5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10, 137-161면.
- 이병순, 「한국전쟁기 여성문인들의 반공서사 연구: 모윤숙과 최정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6, 325-355면.
- 이병순, 「1950년대 여성담론의 소설적 구현: 최정희의 「너와 나와와 청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59-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4, 73-94면.
-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신춘문예와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65-435면.
-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10, 511-570면.
- 최경희, 「친일 문학의 또 다른 층위: 젠더와 『야국초』,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2006, 387-433면.
- 허 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천과 국민되기」, 『어문연구』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3, 257-283면.
- 허 윤,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거듭나기: 1950년대 최정희와 잡지 『주부생활』, 『근대서지』7, 근대서지학회, 2013.6, 565-585면.
- 허 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6, 109-136면.

<Abstract>

Neither War Traitor Writer Nor Army Writer
– Re-visiting Choi Jung-Heui’s Literary Activities in the 1950s

Na, Rhee Boryeong

This paper re-visits Choi Jung-Heui’s literary activities during the 1950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studies the writer when she was seeking refuge in Daegu. Being an independent writer, Choi actively utilized the new publication environment and literary infrastructure in wartime Daegu. This was the turning point that allowed Choi to overcome her stigma as a war traitor writer, gain recognition in the post-war writing scene, and enter the golden age of her writing career. Second, it reviews her activities as a children’s writer. With the publication of *Jangdarikkot pil ddae* (*When Radish Flowers Bloom*), Choi’s stories stood apart from other works in terms of the narrative of war, and the reallocation of texts for troop education in the context of her book—classified as children’s literature—decreased their emphasis on educating soldiers and propaganda. One key characteristic of Choi’s writings in the 1950s was identified as “speaking with a forked tongue”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Third, it examines Choi’s activities as the first female judge. By highlighting the symbolic effect of women serving as agent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literary circles, this paper shows that Choi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base of potential female writers and female readers in the 1950s.

Key words: Korean War, Postwar Literature, 1950s, Choi Jung-Heui,

Fleeing Conflict, Refuge Daegu, Children's Literature, Women Literature, Women Writer, Jangdarikkot pil ddae (When Radish Flowers Bloom), Hakwon, Hakwonsa, Yeowon, Spring Writing Contest

투 고 일: 2021년 8월 3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